

## 수급조절품목 또 개방되나 복지부, 하수오 창출등 9개품목 개방안 입안예고 제조업소 지정 제조품목도 101종으로 확대 방침

지난 11월 11일 중국이 WTO 정식 가입국이 되면서 국내 한약재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다. 한약재 수급조절품목도 현행 21종에서 더 축소 조정될 방침이어서 국내 생약 생산 농가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1일 한약재 수급조절품목 축소 조정과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 하는 한편, 22일에는 보건복지부 주최로 관련단체간 간담회를 갖고 수급조절품목 축소 조정안에 대해 논의, 1차 축소 조정 대상 품목을 추려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21종의 수급조절품목 중 국내 생산량이 적거나 식품용으로 다량이 소비되고 있어 수입제한의 필요성이 비교적 적은 독활, 두충, 맥문동, 백지, 적작약, 창출, 천마, 하수오, 황금 등 9개 품목을 한약재 수급조절품목에서 제외한다는 것. 아울러 현행 69종으로 설정돼 있는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도 32종을 더 추가 총 101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한편 관련단체간 간담회에서 1차 선정된 축소조정대상(2002.1.1 일부) 품목들은 지황, 창출, 천마, 적하수오 등 4개 품목이며 맥문동, 백출, 시호, 오미자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2002년 7월 1일부터 개방한다는 것. 이에 대해 생산농가들은 "중국의 WTO 가입으로 쌀 농사도 이전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는 마당에 약용작

물까지 서둘러 완전개방한다면 도대체 우리 농민들은 어떤 작물을 재배하란 말인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했다. 개방시 충격이 덜한 품목을 내정했다고는 하나 복지부가 내놓은 9개 품목중 두충, 맥문동, 하수오, 황금 등 대다수 품목들은 국내 생산량만으로도 자급이 가능할뿐 아니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중이거나 육성 가능한 품목이 대부분으로 완전 개방할 경우 이들 품목에 대한 생산기반이 눈에 띄게 붕괴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는 것.

또한 중국이 WTO에 가입했다고는 하나 국내 수급조절제도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한약재 시장을 개방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게 일반적 중론이다.

이에 관련 보건복지부 측은 "식품용 수입약재의 변칙유통성행으로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급조절품목의 축소 조정은 한약재 생산농가를 보호하지는 명분으로 국내에서 생산되지도 않은 품목까지 수입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 차원이며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비 일시적 개방으로 인한 충격완화 차원에서 단계적 개방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농진청 성낙술 연구관(작물시험장 특용작물과장)은 "국내 생산량이 충분해 자급이 가능한 품목 외에도 당장은 국내 생산기반이 부족하지만 국내 소비량이 많아 생산기반 조성 필요성이 있거나 육성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도 수급

조절품목으로 묶어 함께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생약협회는 이와 관련 최근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국내 생약농업 대응방향과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존치 필요성'에 대한 협회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협회는 의견을 통해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는 시장개방의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국내 생약농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며 따라서 중국이 WTO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현재 21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는 국내 생약농업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규제개혁위원회(1999.8.13)가 의결 권고한 농가 자기규격 허용 부분에 대한 사후보완책은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소 제조품목만을 확대 고시하려는 처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더구나 이화학적 검사 등 자체 시험설비

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업체가 태반인 현 제조업소들의 운영실태를 고려할 때 한약재 품질규격화 담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산농가의 자기규격 허용부분에 대한 사후조치는 뒷전인채 제조업소 지정 제조품목의 대폭확대는 결과적으로 생산농민들에게 새로운 규제창출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밝혔다.

더군다나 제조업소를 통해 수입되는 약재들의 경우 자체 품질검사 시행규정을 이용, 기원식물이 다르거나 성분함량상 문제가 있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제약없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제조업소 자체품질검사 여건이나 절차,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체계적 보완없이 품목 우선확대 시행은 당초 취지인 품질규격화를 담보해 내기도 힘들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게 업계 공통된 인식이다. <문정희>



### 우리품종 전시회

◇우리품종의 우수성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홍보하기 위한 우리품종전시회가 10월 25~26일 양재동 농협 하나로미트 광장에서 열렸다. 국립종자관리소 주최 농림부와 농진청, 농협중앙회와 우리협회 등이 함께 후원한 이번 전시회에는 총 70여개 업체 및 기관에서 참여 채소, 과수, 화훼, 버섯, 약용작물, 가공식품 등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들이 전시됐다. 생약협회도 이번 전시회에 참여 1백여종의 국산한약재 표본·건재·가공식품 등을 전시 국산약재의 품질 우수성을 홍보했다. (사진은 김동태 농림부장관이 우리협회가 마련한 국산한약재 전시홍보관을 관람하고 있는 장면)

### 공 고

중국의 WTO 가입으로 국내 생약농업환경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식품원료용 수입약재의 변칙유통과 국산과의 혼용유통으로 인한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생약농업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생산자단체인 우리협회가 나서서 국산한약재의 유통질서를 바로 세우고 '브랜드화'를 통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 나가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협회의 얼굴이 될 국산한약재 상품 로고를 공개모집 합니다. 우리협회가 자체 생산 품질 인증하는 국산한약재임을 표시하는 상품 로고 응모에 회원 및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응모기간 : 2001년 12월 31일 17시
-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접수처 :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1140-55호 대산빌딩 301호  
한국생약협회 기획홍보 담당자 앞

※ 당선작으로 채택되신 분께는 상금 20만원과 소정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사무국(02-967-8133)으로 문의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 지면안내

- 특집/중국 약초재배지를 가다 ㉠ ..... 3면
- 중국 약재시장 동향 ..... 4면
- '약용작물과 21세기 생물산업' 심포지엄 주제발표 요지 ..... 6면